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

-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 -
- 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 12. 29.(금) 08: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그 영향을 집중 점검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경제수석 박준섭

※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hskim5495@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성준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jangwonsuk@korea.kr)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최영주 (02-759-4777)
		담당자	과 장 류창훈 (chryu@bok.or.kr)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정훈 (02-3145-8180)
		담당자	수 석 최석원 (eco1227@fss.or.kr)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우선 경제부총리로서의 첫 번째 회의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그 의미를 무겁게 생각합니다.

어제 태영건설(도급순위 16위)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정한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하며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되어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중입니다.
이에 더해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하여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드린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들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기 가입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동시에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 대응하여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시장안정조치 확대 방안

(단위 : 조원)

주요 시장안정조치	현재	<div>⇒</div> <div>필요시 확대</div>
① 채권시장안정펀드(83개 기관)	20.0	
② 회사채·CP 매입(산은, 기은, 신보 등)	10.0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산은, 신보)	1.0	
③ 채권시장안정 P-CBO(신보)	5.6	
④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금투업계)	1.8	
⑤ 증권사 유동성지원 (증권금융)	3.0	
⑥ PF 사업자 보증(주금공, HUG)	25.0	
PF-ABCP 대출전환 보증(주금공, HUG)	3.0	
⑦ PF 정상화 지원펀드(캠코, 금융업권)	2.2	
⑧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HUG)	5.0	
⑨ 건설사 대출(산·기은) 및 보증(신보) 추가 확대	4.6	
⑩ P-CBO 건설사 편입 확대(신보)	1.3	
⑪ 非아파트 건설자금 보증(건설공제조합)	6.0	
총 프로그램 규모	84.5	